



오늘의 말씀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_ 에베소서 4:5~6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
| 2-3 | 항존직 선거 | 9 | 목회서신 / 권사회수련회 | 12 | 늘푸른대학 봄소풍 / 교사일기 | 14 | 교회사용설명서 |
| 4-7 | 무지개잔치 | 10 | 마더와이즈 수료 간증 | 13 | 허준 목사 위임예배 | 15 | 십자말씀이 |
| 8 | 유아유소년숲 여름사역 | 11 |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 13 | 시니어선교학교 | 16 | 공동체소식 |

우리의 잔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잔치는 기쁨입니다.

저 멀리 놀이동산에 가지 않아도 놀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 기쁨입니다.

우리의 잔치는 나눔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 그리고 재능으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나눔입니다.

우리의 잔치는 섬김입니다.

보이지 않은 곳이든 뜨거운 햇빛 아래서든
각자의 맡은 일에 열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돕는 섬김입니다.

우리의 잔치는 배려입니다.

먹거리 준비 시간이 더 걸려도, 준비한 음식이 부족해도
불평없이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배려입니다.

우리의 잔치는 감사입니다.

잔치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최상의 날씨를 주시고,
예비된 손길들, 필요한 곳마다 풍성히 채워주시니 감사입니다.

우리의 잔치는 사랑입니다.

꾸밈은 없지만 기쁨으로 나눌 수 있고 배려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간 이웃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민기 집사

2022 2023 통합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관련된 총회 헌법

2022 2023 통합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가 진행되어 장로 3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19명이 피택되고 피택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존직 선거를 하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관련하여 주님의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총회 헌법 내용 중 항존직의 직무와 자격, 선택과 임직에 관한 부분을 발췌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에 대한 이해와 함께 피택되신 분들의 교육과 임직,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들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글함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2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직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제6장 장로

제39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40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제42조 장로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 노회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교회는 장로임직을 행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안수집사 및 권사

제50조 안수집사의 직무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51조 안수집사의 자격

안수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후 3 : 8-10)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남자

제52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53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후 3 : 11)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여자

제54조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55조 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2. 안수집사 및 권사는 당회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2022,2023년 통합 공동의회 항존직 피택자

은혜로 부름받은 피택자를 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순연되어 시행된 항존직 선거가 올해는 2022, 2023년 통합 항존직 선거로 5월 14일과 21일 두 차례 전자투표방식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중직자 추천투표 대상이 세움학당 수료가 필수조건으로 제한되어 지난해보다 적은 인원이 피택되었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셔야 하기에 더 많은 기도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더 큰 격려와 함께 2022, 2023 통합 항존직 피택자를 소개합니다.(가나다순)

함글함글

장로 (3명)



박기운



신호철



정상기

안수집사 (10명)



김 훈



송성욱



송영민



신광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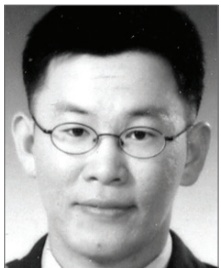
윤상현



이용욱



임성훈



지형민



차 호



최태섭

권사 (19명)



고영선



김숙연



남궁옥귀



노수희



배정애



신말희



유종숙



유지은



윤금자



윤기선



이경아



이경희



이부자



이정화



이혜영



임광희



임현주



지영민



최연호

하나님의 선교
2023 무지개잔치

2023 전교인 무지개잔치는 ‘언제나 맑음’

2023년 5월 29일 오전 11시, 아이들의 목소리, 각 교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주님의교회가 시끌벅적한 잔치의 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던 기상예보로 걱정하던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무지개잔치를 위해 구름기둥과 화사한 햇살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무지개잔치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유아숲의 어린이부터 교회의 모든 성도들까지, 총 6개 존, 46개 프로그램, 257명 봉사자의 기도로 비운 뒤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처럼 은혜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예정되었던 전교인 무지개잔치가 폭우로 한차례 연기 되었지만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그 즐거움을 아는 아이들의 설렘 덕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4년간 중단됐던 무지개잔치가 전교인으로 확대되어 ‘기쁨과 회복(시 30:11)’이라는 주제로 다시 열린다는 소식은 모든 교인들을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기쁨의 24개 즐길거리 (플레이존 / 패밀리존 / 게임존)

김화수 담임목사님의 개회사로 46개의 프로그램과 257명의 무지개잔치 봉사자들과, 교구운동회 참여자로 준비된 무지개잔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잔치를 누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어린이 약 1200명, 성인 약 1300명). 동물 캐릭터 친구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 부스에서 입장팔찌와 무지개잔치 브로슈어, 무료쿠폰을 받은 아이들은 에어바운스, 바이킹과 우주선, 전동 기차를 비롯한 여러 놀이기구 앞에서 무지개를 닮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행사는 질서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인생네컷 포토존 앞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교회 가족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키팅 꾸미기, 바람개비 만들기, 풍선아트, 달고나 왕 등으로 꾸며진 패밀리존의 부스를 찾는 부모와 자녀의 발길이 잔치 내내 이어졌습니다. 게임존은 온 가족이 게임으로 기뻐했습니다. 부모님은 추억의 두더지게임 앞에서, 아이들은 농구게임과 해머치기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푸짐한 회복의 먹거리(푸드존)

잔치에는 먹거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무지개잔치를 즐길 무렵 푸드존의 맛있는 냄새로 잔치의 흥을 더했습니다. 한쪽에는 떡볶이의 매콤한 맛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국밥은 잔치를 즐기는 모든 이들에게 배고픈 배를 든든히 채워주었으며, 시원한 음료는 마른 갈증을 풀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북한향토음식도 맛볼 수 있었고, 솜사탕, 아이스크림, 팝콘을 양손에 쥐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냥 행복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교인 무지개잔치는 푸드트럭(다꼬야끼, 닭강정, 쌀핫도그)을 초대하여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한 잔치였습니다. 푸짐한 먹거리 뒤에서 주방봉사자, 여러 음식준비로, 설거지 봉사 등으로 함께 한 114명의 봉사자들의 귀한 섬김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되는 교구의 장과 유유청청 교육사역

이번 무지개잔치는 ‘전교인 무지개잔치’로 전 교구(1~8교구)가 운동회로 주 안에서 연합하며 하나가 되는 장이었습니다. 탁월한 MC의 진행 아래 신발 던지기, 큰 공 굴리기, 기둥을 세우기를 즐겼습니다. 열심으로 준비한 권사회의 위십은 많은 환호와 박수를 받았으며, 박 터트리기로 하나님의 선교를 다시 한 번 온 교회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스는 주님의교회 교육사역을 온 교회와 지역사회에 알리는 홍보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내는 주님의교회 교육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무지개잔치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전교인 무지개잔치를 위해 주차봉사자, 드론촬영으로, 방송으로, 기도로 섬긴 수많은 분들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전교인 무지개잔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잔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년만에 모든 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신나고, 크게 웃고, 열심히 뛰고, 맛있는 음식을 즐긴 전교인 무지개잔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깨닫고,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별히 전교인 무지개잔치 대회장 담임목사님, 위원장 임익수장로님, 이성준, 조병길, 변춘석 장로님, 기획팀으로 1월부터 함께 동역한 최영인, 정유석 안수집사님, 김미성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무지개잔치로 주님의교회를 하나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상훈 목사 / 유소년부



하나님의 선교
2023 무지개잔치

너로 인하여 기뻐노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여기 2023년 전교인 무지개잔치에 참가한 교회와 지역의 2,500명을 섬기기 위하여 삶으로 십일조를 드린 257명의 명단을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현장에서 기쁨으로 실천하며 헌신적으로 섬긴 자들입니다. 예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님께 너로 인하여 기뻐했다고 의의 면류관 받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 의롭다 칭함 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글함글

구획	팀장	내용	대상	담당부서	총인원	섬김이 (11:00~13:30)	섬김이 (13:30~16:00)	비고
계	-	46개 프로그램	-	-	257			-
플레이존	최영인	에어바운스1	취학어린이	어와나 티앤티	2	김범수	권동준	외부인원 2
		에어바운스2			2	정지영		-
		에어바운스3			2	강서희		
		에어바운스4 (바이킹)	미취학 어린이	유아숲	6	윤진영, 권유정, 김경진, 우지민	이선옥, 좌봉준	외부인원 2
		전동기차			7	신현정, 이미화, 이영선, 차호	남초롱	
		바이킹1	어린이	어와나 스팍스	2	이서용	김윤정	-
		바이킹2			2	김미리	박재민	
		우주선			1	홍주희		
		고카트라이딩	미취학 어린이	소년1부	3	윤경자	이수민, 이종은	외부인원
		사격존	어린이	소년2부	6	김상아, 김소진, 김소현, 박성일	김진욱, 서호경	-
	이상훈	실내 포토존 (인생네컷)	전교인	유년1부	3	권택정, 김선희	임미정	외부인원 1
		실내 포토존		청소년숲	8	김지유, 박서은, 설은우, 오성민, 정세은, 최연희, 함혜련, 황하정	-	
교육부스존	이상훈	유유청청	전교인	사역자	2	김오정	백양선	-
패밀리존	김경민	키링꾸미기	전교인	유아숲	4	유수형, 이영혜	이신숙, 이왕희	-
		페이스페인팅			9	강기선, 김경희, 류은경, 신지원, 안정현, 유영옥	조정숙, 황혜영	
		바람개비만들기			8	권이홍, 유정, 이동근, 이숙희, 이인숙, 추미선	송희, 염기영	
		팔찌만들기			6	송진경, 이선유, 이현미, 정의영	송지수, 최종경	
		빨리 돌아와 (스테킹타임어택)		유년부	27	강현서, 이서윤, 이현준, 이형래	차경진, 최태섭, 한경은	
		달고나 왕		소년부		이은주, 장병남, 민연식, 최금희		
		풍선아트		스팍스, 티앤티		이우진, 김예경, 김세진, 강춘경	정지영, 이정우(티앤티)	
		Squishy Cross		유소년숲 EM		김민경, 김지은, 양수미, 이윤정	신동이, 서여람	
		풍당풍당 공깃돌을 던져라		초등부		신재은, 김종철, 한경희, 조예원, 송현지, 이현숙	이선우, 이경아	
교구행사존	임익수	권사회 워십	교구	권사회	9	김명숙, 김선미, 김지수, 유경, 윤숙영, 이숙희, 이영숙, 이효순, 천옥현	-	
		신발던지기		교구	2	권동준, 박준범		-
		큰 공 굴리기						
		기둥을 세워라						
		박 터트리기						
		진행 MC		청소년숲	3	김계원, 정우림, 최혜원		-
게임존	이상훈	추억의 두더지잡기	전교인	초등1부	2	조지현	이승훈	-
		농구게임						
		해머치기						
푸드존	정유석	푸드트럭1 (다꼬야끼)	전교인	초등2부	2	최유림	박민영	외부인원 1
		푸드트럭2 (닭강정)			2	권성윤	이정은	
		푸드트럭3 (쌀핫도그)			2	계경희	김상분	
		떡볶이		지원자	14	봉준우, 손준웅, 최민기, 고선애, 김주현, 박설리, 김숙자, 남궁옥귀, 설정희, 안금주, 이혜영, 유경희, 유소자, 홍계옥		-
		팝콘		청소년숲	3	이미경, 최성이, 홍기현		
		음료판매		유년2부	5	강숙향, 박시준, 이서윤	박기운, 성순현	
		소프트아이스크림1		청소년숲	6	설은우, 이신형, 이우진	정우림, 최유민, 최혜원	
		소프트아이스크림2		청소년숲	4	유지은, 이우진	김지유, 정예은	
		숨사탕		청소년숲	11	김계원, 김복수, 김지유, 백양선, 박희성, 우정수, 이미영, 이우진, 조원준, 홍기현, 황하정		
		북한향토음식 (통일선교분과)		통일선교부	6	김재민, 김영희, 이영숙, 정기순, 류미, 김지향		
		국밥		여전도회	6	강정여, 송정화, 원은영, 이은주, 이춘희, 정은아		
		주방 봉사			46	강경희, 강승미, 고유자, 권숙자, 권순미, 김금옥, 김미선, 김분자, 김영례, 김영조, 김점순, 김혜숙, 나경희, 노수희, 민경희, 배홍자, 서금란, 성옥환, 송성열, 송용란, 신말희, 신정미, 안종택, 양윤정, 여윤정, 오명자, 유순익, 유윤정, 이봉순, 이순란, 이애숙, 이은경, 이은숙, 이혜숙, 장계희, 정하선, 정선화, 조균실, 조옥자, 천옥현, 최남영, 최정숙, 탁윤주, 한신혜, 허건순, 한다경		
		주방 지원		지원자	8	김선희, 박권선, 서용원, 송재승, 신호철, 이미경, 정현식, 조은경		
쿠폰판매	김미성	쿠폰판매 / 정산	전교인	유소년숲 회계	11	임광희, 이미경, 조경란, 이진원, 손은혜	고경임, 김광희, 목기숙, 배애리, 유경, 임연옥	-
입장부스	이상훈	등록부스(무료쿠폰)	미취학 어린이	유아숲	5	임창남, 박수희, 조은경, 최정윤	어진원	-
			취학 어린이	유소년숲	5	김경희, 김애리, 문현주, 이경란, 이은주, 이정준		
캐릭터	이상훈	캐릭터	전교인	-	2	장성식, 김지민	-	-
주차	신형섭	주차 안내	전교인	-	3	유신식, 원종철, 이효두		-

하나님의 선교
2023 무지개잔치

기쁨과 회복의 기억들



친구와 우정 추억 쌓고 가요~



기별과 회복

무지개잔치 너무
재미있어요!
다음에 또 열어주세요~

바이킹 타다
죽을 뻔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360° 회전하는 기구가
다음에도 오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1년을 기다려왔던 무지개잔치!
두들 두들 어린이날에 바다와서
아이들이 수줍도록 이렇게
격일에 해서 좋았어요
봉사자분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화장품도 선물 받았어요
두들 두들
유치원 원장의 사랑, 교사의 사랑
친구와 교실에서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네요
맛있는 음식도 많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 유치부 어린이 -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갑니다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했어
좋은 날씨에 고생 많았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여러가지 있어서
즐거웠어요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친구가 무사할 것 같았는데
안무곡도 것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네요!!

너무 신지도 좋구~
바이킹 2광목
무로 승선함. 아이스크림, 꿀
아이들이 온전한 시간 보냈어
내년에는 꼭 한번 볼래

아이들과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기대했던
무지개 잔치
유치원 선생님과 함께
내년에는 또 한 번 함께~

오랫만에 무지개 잔치에 왔습니다
맛있고 좋은 여권 선물도 받아서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함께 하고 온 친구들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아쉽게
유치원 못 갔어요
영국이 너무 맛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더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날씨도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
쿠방이 일찍 끝났어
맛있게 아쉬웠어요

어린이날에 못해서
아쉬웠는데
오늘 이런 행사를 해서
즐거웠고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게 놀다 갑니다
(P.S. 바이킹
개재 있음)

비록 단풍이 많이 떨어졌지만
다들 아들의 미소를 다 보고
다들 아들의 미소를 다 보고
다들 아들의 미소를 다 보고
다들 아들의 미소를 다 보고
다들 아들의 미소를 다 보고
다들 아들의 미소를 다 보고
다들 아들의 미소를 다 보고

행복한 시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기대해도 될까요 >_<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어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너무 즐겁고 재밌게
유치원 보내고 갑니다.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

아이들 위해서 행복한 추억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P.♡

간식과 음료도 너무
맛있었고 재밌게 정말
많았어요!! 바이킹도 재밌
게요!! 다음에도 함께
되면 다시 보겠습니다.
정말 즐거웠어 해서 좋았어요
- 정민아 (4살)

너무 재밌었고,
왔을 때 놀이기구,
푸드트럭도 있어서
너무 신나고 놀았다.
다음에 또 앞으로
하면 좋겠다.

어린이 무지개 잔치가
재미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즐거웠어요! 방방이랑 함께 아이스크림을
아쉬움: 방방이랑 함께 아이스크림을
아쉬움: 방방이랑 함께 아이스크림을
아쉬움: 방방이랑 함께 아이스크림을
아쉬움: 방방이랑 함께 아이스크림을
아쉬움: 방방이랑 함께 아이스크림을
아쉬움: 방방이랑 함께 아이스크림을
아쉬움: 방방이랑 함께 아이스크림을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었어요...
놀이 기구도 음식도 정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두고 싶어요!!

무지개 잔치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스러운 가족입니다!!

풍치 한 마
가장 재미있었던
도 재미있었던
도 재미있었던
도 재미있었던
도 재미있었던
도 재미있었던
도 재미있었던

즐거웠어 어린이날은
지금이라도
너무 즐겁고
내년에는 또 기대해요

소사탕 먹음게 조작표.
Yummm

6학년교회
무지개 잔치에서 "축하" 응원
물과 함께
재미있게
많은 분들이
아쉬웠어요.
내년에는
재미있게
재미있게
재미있게
재미있게

오늘 재밌는 행사 많았어서
행복했어요!!
아이스크림, 소사탕 무료로 나눠
주셔서 몸도 마음도 행복해요.
내년에도 참가하겠습니다!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음식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년에 또 봐요!!

무지개 잔치가 이렇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4년만의
무지개잔치,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만에 무지개 잔치에 왔습니다
맛있고 좋은 여권 선물도 받아서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함께 하고 온 친구들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곳이었어요
간만에 친구들과
앞으로 계속 있으면 ~ ~ ~

풍선 놀이도 재밌었어요!
무지개 잔치
팝콘이 맛있었어요!
풍선/아이스크림,
열심히 준비해 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맛있고 재밌었어요

여기까지 먹을거리를 준비하여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가족들과 인생에
적당한 것들
내년 어린이날도 기대해요!
대형 놀이기구, 스탠드 등
많은 것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깨끗한 환경
시골 주니가 있어서
행사를 위해 준비하신 분들
내년에는 또 만났으면
기대합니다

재미있고
다음엔 행선 더 많이
보여주세요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믿음의 사람, 나예요!

이번 유아숲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믿음이 사람, 나예요!”(삼상16:7)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용기가 충만하며, 친구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유아숲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8일 토요일에는 유아숲 전체 부서가 함께 모여 중예배실에서 오프닝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즐겁게 마음을 여는 찬양축제의 시간과 흥미진진한 연극설교와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는 각 부서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센터학습 및 대그룹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9일 주일까지 이어지는 예배와 활동을 통해 말씀을 더욱 기뻐하며 말씀으로 쑥쑥, 지혜가 자라고 유아숲 공동체를 더욱 기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숲 가정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며 준비하겠습니다.

이윤경 목사 / 유아숲

유아숲 여름 성경학교 일정표

7/8 토요일		
09:20-10:00	교사경건회	B1 중예배실, 교사전체
10:00-10:30	등록	본당 1층 로비_포토존 이용
10:30-10:55	찬양축제	유아숲 전체_B1 중예배실
10:55-11:30	예배	연극_설교_B1 중예배실
11:30-12:30	점심식사	아기부·영아부·유아부 부서실에서 유치부 식당에서
	11:30-12:30	♪ 아기부 대그룹활동
12:30-14:00	12:00-12:30	♪ 하나님이란 나랑- 아기부실
	12:30-13:10	♪ 영아부 대그룹활동
12:30-14:00	12:30-14:00	♪ 유아부·유치부 센터학습
	12:30-14:00	센터① 보인다 보여, 내마음! (말씀활동) 센터② 골리앗을 이겨라, 람! (신체활동) 센터③ 사랑의 부채 만들기! (미술활동) 센터④ 담쟁이 여름 영화관 (유치부만)
14:00-14:15	부서 광고 및 인사	14:15 귀가지도

7/9 주일

30분	예배	주일 각 부서 예배시간 (1부: 9시 / 2부: 11시)
	아기부	♪ 엄마랑 아빠랑 나랑 아기부실
30분	영아부	♪ 믿음의 친구 (협동놀이) 영아부실
	유아부·유치부	♪ 믿음의 사람 (액자만들기) 유아부실·유치부실

유소년숲
여름성경학교

코람데오!

2023년 유소년숲 여름성경학교는 4년만에 모두 현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삼하 6:14, 대하 20:21, 행 10:45-46)’라는 주제로, 성경의 인물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유년부(초등 1~2학년)는 7. 29(토)~30(주일), 무박 2일을 일정으로 주님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초등부(초등 3~4학년)와 소년부(초등 5~6학년)는 7.28(금)~30(주일), 2박 3일 일정으로 치악산 황둔청소년수련원에서 여름성경학교가 준비됩니다. 유소년숲 EM(English Ministry)은 Shine Jesus'Light(John 8:12)라는 주제로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린이로 세우고자 합니다. 7.22(토)~23(주일), 26(수), 무박 2일을 일정으로 주님의교회에서 VBS(Vacation Bible School)가 열립니다.

유소년숲의 모든 여름사역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목사 / 유소년숲



목회서신

안식월에 나누는 목회 서신

예수님은 특별히 어린이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어른들의 말보다 더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지난 5월 5일 열리기로 한 무지개 잔치가 쏟아지는 비로 인해 5월 29일로 연기되었을 때 아



이들이 너무나 아쉬워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5월 29일에도 비가 올 것 같다는 기상청의 일기예보에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 둘 “예수님, 만약 5월 29일에도 비가 오면, 그때부터 당분간 예수님을 미워할게요. 예수님을 싫어할 거예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의 말에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고심하시다가 5월 29일 내릴 비를 뚝뚝 묶어주셔서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기가 막힌 날씨 가운데 드라마틱하게 무지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날 잔치는 아이들만 천명이 넘게 몰려들었고, 아이들은 축제 같은 무지개잔치를 마음껏 즐기면서 아주 신나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도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아이들과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무지개잔치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가슴에 담고서 3개월의 안식월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식 기간 중 재충전과 쉼의 기회를 잘 선용해서 돌아와 성도님들을 뵈겠습니다. 안식의 기간이 다시 사역을 시작할 때,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주, 아주 자주 느끼는 일이지만 신모택 축하합니다. 제 안식월에도, 돌아와 다시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제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한동안 대명해서 만나지 못하겠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 가운데 만나는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김화수 담임목사

권사회
아유회

초여름 유월의 즐거운 시간

6월 7일(수) 올림픽 공원으로 권사회에서 아유회를 다녀왔습니다.

계절도 초여름을 접어드는 유월이라 푸르름이 더욱 짙어져 피톤치드가 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올림픽공원역에서 모여 함께 걷고 잔디 광장에서 레크레이션과 조별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3년 권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가정”표어로 가정과 교회에서 전도와 여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사회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월례회가 열리고 있으며 7월과 8월에는 쉬고 있습니다.

신형섭 장로



무지개잔치

무지개 축제는 함께함

뭔가...

좀 비현실적이었던 것 같은...

그런 하루...

계속해서 내리던 비.

그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비

어쩔 하늘이...

어쩔 나뭇잎새이...

어쩔 향내음이...

어쩔 어울림이 어쩔 함께함이

그렇게 완벽하게...

아름다울 수 있었는지...

신기하고...

또 신기해서...

마냥 행복했던...

그런 하루...

오늘하루 무지개 축제에서

느낀 감정의 이름은

바로

뿌·듯·함,

그리고 함·께·함이었습니다.

신형섭 장로

가정사역원
마더와이즈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지혜의 삶

9주간 진행된 마더와이즈 5기 지혜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며 지난 5월 30일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34명이 신청한 가운데, 32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선 나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지혜의 삶 살아가기로 다짐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료식 중 진행된 두 명의 간증문을 소개합니다.

이윤경 목사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의 여지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세상과 잘 타협하며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교회에 깊숙이 들어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겨자씨 모임의 집사님이 마더와이즈 교육을 권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인도였을까요? 나가고 싶다는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첫날 6S 기도가 시작되자 어찌어찌 그 시간을 넘기긴 하였으나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며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저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기대하신 걸까요? 숙제로 공부하는 것이 의외로 재미있었습니다. 간혹 아는 말씀들도 있고, 오래 다닌 것이 헛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며 주변에 마더와이즈 교육을 받는다고 자랑도 하고 친정엄마에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고 충고도 하며 중보기도의 역사도 받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고 은혜로우며 충만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큰아이의 저조한 성적과 여전한 둘째 아이와의 갈등이 지속된 가운데 몸 상태도 안 좋아지자 슬슬 공부에 피가 나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문제를 또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조원분들께서 같이 기도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셨지만 전 그만 더 이상 참고 인내할 수 없다며 평평 울며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간증까지 하라니 전 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교육 마지막 날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어 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좋아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뱉기만 하고 제 스스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는 않았던 것을 말입니다. ‘난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바라기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이 넘게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 지난 몇 주 순종하는 척을 했던지라 저에게 똑바로 순종하라고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성숙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어렵지만 자꾸 도망만 가려는 저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저도 이제는 조금씩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유길정 성도 / 3교구



저는 8년을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주일에배만 드리는 미등록 교인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면 세상에서 구하려 했고 주고받는 상처에 지쳐있었지요! 그러던 중 자녀로 깨우시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에 놓인 자녀를 지켜보는 것의 고통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되니 무릎 꿇게 되었고, 뜨거운 기도가 터지는 순간이었습니까도 주님은 그 자녀로 저를 세우셨습니다. 딱 한마디, “엄마! 이제 등록좀 하지!!---;;”. 큰 울림으로 다가온 한마디로 저는 등록하게 되었고 교육받고 마더와이즈도 안내받아 이 자리에 있네요~ 설레고 떨렸던 마음 안고 첫 자리! 계획을 안내받는데... 아! 잘못 왔다! 안되겠다 싶었어요! 매일 공부하고 6s 기도라고 헐!! 엄청난 중압감으로 포기를 다짐할 때 기도가 시작되었고 한 성도님의 떨리는 입술의

간증!! 조원 모두가 하나로 기뻐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 엄마라는 공통분모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조원들 덕분이었어요! 언제나 아침을 성경말씀으로 열어줬던 우리 조장! 차경진 집사님! 선한 빛의 큰 눈으로 늘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서 편안했어요~! 고마워요. 권집사님 새로운 출발 응원할게요! 또 따뜻한 눈길...손길...잊지 않을게요. 한원선 집사님 덕분에 잘 적응했네요! 그리고 늘 말안치처럼 넉넉한 미소로 들어주던 이은실 집사님 감사해요! 예쁜 미소 기억할게요~ 반전매력의 이연경 집사님. 늘 눈물로 공감해줘서 위로받았어요~ 마음 많이 갔던 오영재 집사님! 집사님의 순수한 마음 기억할게요~ 몸과 마음 상하지 않게 꼭 자기 자신을 돌봐주어야 해요!! 이렇게 보석 같은 4조를 만나 4조 구성원으로 지냈던 시간 행복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이지만 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였고 받은 사랑의 크기를 알았습니다! 그 받은 사랑만큼 자녀에게 내릴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상했던 마음을 위로받았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오니 받은 큰 위로만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저와 늘 함께해주세요 라고 다짐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리향숙 성도 / 5교구

청소년부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정신여고 노래선교단과 함께한 특별한 하루

지난 5월 14일, 주님의교회에서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55회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55회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 많은 부모님과 54회 노래선교단 친구들, 주님의교회 성도분들이 오셨다. 이렇게 와주신 많은 분의 응원을 받으며 55회 노래선교단 친구들이 오랜 전통이 있는 노란색 단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섰다. 다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한 후 반주자의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자마자 내게는 뜨거운 감정이 밀려왔다.

1년 전 54회 노래선교단이었던 나는 후배들의 찬양을 들으며 작년 이맘때쯤 주님의교회에서 첫 공연을 했던 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다. 긴장 속에 주님의교회에서 첫 무대에 오르던 나는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 나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후배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긴장되는 느낌이 어떤지 잘 알고 있

기도 했고 그간 후배들의 연습 과정을 지켜봐 왔기에 더욱 뜨거운 감정이 밀려왔던 것 같다. 한 명도 빠짐없이 열심히 찬양하는 후배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 알게 하소서', '노래할 이유 있네'를 비롯하여 총 8곡의 찬양을 하였고 중간에 관객들을 위한 생일 축하 이벤트까지 진행하였다. 친구들의 귀엽고 절도 있는 안무가 인상 깊었고 랩이 섞여 있는 찬양은 신선했던 것 같다.

공연 하루 전, 5명의 건강 문제로 갑작스럽게 안무를 변경하는 일도 있었으나 많은 이들의 걱정이 무색하게 공연을 무사히 마쳤다. 찬양을 들으며 지난 3개월간 열심히 연습했을 55회 친구들의 노력이 보였다. 다른 친구들보다 학교에 1시간 일찍 오고 방과 후에는 2시간 늦게 집에 가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 것이다. 55회 친구들은 그 당연하지 않은 힘든 연습을 자진하여 열심히 임했던 성실한 친구들이었고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은혜가 넘쳐났던 것 같다.

물론 55회 친구들에게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공연 중에 아쉬운 점들도 있었겠지만 언제나 완벽한 공연을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성도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후배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작년의 나는 매 공연이 끝나면 나의 부족했던 모습들을 떠올리곤 했었는데 그 점이 지금 가장 후회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55회 친구들의 찬양을 통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후배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꼭 함께 전하고 싶다.

노래선교단을 위해 언제나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진행되었기에 후배들이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남은 노래선교단의 서울 순회와 전국 순회 연주도 후배들이 잘 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윤소영 / 고등부 3학년(노선단 54기)



안녕하세요, 55기 노래선교단 회장 백소연입니다! 일단 친구들을 대표해서 주님의교회에서 저희 친구들과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55기 노래선교단이 하나님께 준비한 무대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55기의 첫 무대였던 만큼 기억에 남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의 찬양으로 인해서 한 분이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거라 믿습니다! 저희도 무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무대를 보면서 모두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장하는 노래선교단이 되테니 저희를 위해 많은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항상 주님의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주님의교회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소연 / 고등부 2학년(노선단 55기)

주님의교회 중고등부 예배는 학교 밖에서 찬양하는 첫 찬양 사역이었다. 긴장되고 걱정됐었지만 문득 이 자리가 우리의 공연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졌다.

교회에서 찬양하기 전 나는 삶에 있어 조금은 지쳤던 것 같다. 그러나 첫 찬양 예배 후 나는 더욱 단단해졌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무엇보다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낯설었던 '찬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꽤 오랫동안 지속됐던 신앙적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어렴풋이 찾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아 힘들었는데, 노래선교단 친구들과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성전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오래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에 대해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극히 작은 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나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이희규 / 고등부 2학년(노선단 55기)

늘푸른대학
봄소풍

늘푸른대학의 봄소풍

코로나시대를 시작한지 4년 만에 여러 가지 경향으로 드디어 코로나가 종식된 듯합니다. 국제보건기구(WHO)에서는 이미 앤데믹을 선언하였고 우리나라도 이미 비슷하게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불안한 부분들도 많고 확실히 코로나가 끝났다고 여겨지지 않아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쉽게 벗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자유로워진 상황 속에 5월 16일(화) 늘푸른대학에서 오산 물향기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참석한 어르신들 그늘 숲속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만들어주신 오병이어는 아니지만 준비해 간 도시락을 먹으며 마냥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봄소풍을 무사히 마치고 교회로 오는 길에 봉사자들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스한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일에 더 힘쓰게 하소서 그리고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주소서”

2023년 2기 늘푸른대학은 주님의교회 70세 이상 교우들만 참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학기 강의는 모두 17번이 진행되며 7월 4일에 1학기 종강 예배를 드리며 방학을 합니다.

신형섭 장로

교사일기
유치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기를

마을에 한아이가 태어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 교육은 한 가정뿐만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저출산시대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국가가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산모 지원, 교육 및 문화적 지원,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 및 주거 안정 지원 등 국가의 온 역량을 집중하여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때에 교회에서의 아이들의 돌봄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교회는 자녀들을 위해 조부모의 믿음이 4대(代)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모토와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자녀축복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교인들의 단합된 기도를 통해 시대에 부합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참 교회학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담임하는 유치부(6~7세)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로서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 기쁨은 크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5세반에서 월반하여 접하게 되는 예배실의 낮가림도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통해 두어 달이 지나면 언제 낮가림이 있었느냐고 반문할 정도로 당당하고 씩씩하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높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다른 곳을 보기도 하지만 전도사님의 수준급의 일인 다역의 설교 말씀에 귀를 쫓긋 세우기도 하고 질문 시간엔 손을 번쩍 들고 대답을 할 때는 대견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또한 예배 시작 전이나 후에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우리 손자 손녀가 왔나 하며 예배실 밖에서 기웃기웃하신 뒤, 당신들의 손주들을 보시고서는 얼굴에 큰 미소를 띠우시며 기뻐하시는 모습 또한 매주 반복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올해부터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저에게도 아이들이 예배실이나 식당에서 달려와 품에 안기거나 예배실 밖에서 아는 척을 할 때는 사랑스러움과 함께 보람과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유치부 예배라는 귀한 일에 부족한 저를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한 주간의 일터에서 또한 육아로 힘드셨을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먼 곳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매주 예배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시는 것을 볼 때 감동 자체입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님에게 “교회학교 선생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유치원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곤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의 사랑과 기도를 아이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남짓 아이들과의 만남 동안에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미소와 온몸에서 품어내는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익힌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그들이 이끌 공동체를 바른길로 인도할 것이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 여정의 자양분이 되고 믿음 생활과 삶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에서는 미래의 소중한 보물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기도와 말씀 양육에 힘을 모으며, 동역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돌보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씀처럼 아이들의 육신의 강건함과 진리의 말씀이 가슴에 충만하게 스며들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숙희 권사 / 유치2부

위임예배
새봉천교회 허준 목사

주님께서 부르신 곳!

정말 기적같은 일이었습니다. 과연 목사 위임식과 직분 임직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상황이 아주 다급하게 돌아갔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예식을 막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총회재판국을 설득하여 예식을 못 하게 막고 중앙지법에 위임식 중지 가처분신청까지 넣었습니다.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문자를 돌리고 당일에도 교회에 쳐들어와서 물리력으로 막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위임식을 허락하고 주관하시는 노회 임원분들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는 더욱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주님의교회 성도님들께 중보기도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신다고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다렸습니다. 안정된 교회에서 편하게 부임하고 위임도 받으면 좋을텐데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임식장에 들어서려고 하다가 부모님과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너 같은 게 목사냐?”하는 고함을 들었습니다. 저는 과연 목사가 맞을까요? 온몸으로 부딪히고 막아서서 경찰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위임식장에도 들어가지 못할 뻔 했습니다. 계속된 소란과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식이 진행되었고 그 날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위임식과 임직식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한 위임식과 임직식이 있었을까요. 함께 참여하여 격려해주신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제가 주님께 부름받은 곳입니다. 이 상처입은 양떼를 돌보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노 권사님은 수백 번도 더 교회를 떠나려고 고민했다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교회 때문에 상처 입고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상 누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여기 도 또 다른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고 상황이 달라도 그리스도의 참된 몸으로써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기막힌 신비입니다.

허준 목사 / 새봉천교회



시니어선교학교

21세기 초대교회를 꿈꾸며

나는 한국 교회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라고 규정한다. 이런 선입관 때문에 나는 한국 교회의 선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미전도 종족들에게 한국 교회와 비슷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해외 선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나에게 평소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이 부탁을 하셨다. “시니어선교 학교에 참여자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그 한 마디에 나는 사고를 쳤다. 시니어선교 학교에 덜렁 등록을 해 버린 것이다. 3월부터 지루한 강의들이 시작되었다. 시니어선교한국 소개, 인생 후반전 선교, 세계 선교 현황 등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시니어선교 학교에 등록한 것을 후회하였다.

이어지는 강의를 듣는 동안 마는 동안 하던 내게 반전을 마련해 준 것은 선교 현장 탐방이었다. 거의 평생을 외국인 근로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해 오신 Friends of All Nations 전철한 선교사와 이주민 선교에 전 생애를 바친 이재승 선교사와 사모님의 헌신은 내게 큰 도전을 주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 같았고, 이 시대의 작은 예수였다. 한국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 나는 이들에게서 한국 교회의 희망을 보았다. 이들의 헌신된 삶의 모습은 나의 선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위해 밥해주는 일, 청소해 주는 일,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 등 지극히 작은 일도 모두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디를 나가든 들어오는 상관없이 내가 서있는 위치에서 이웃을 살리고, 이웃 살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라는 것을 알게 해 준 것은 시니어선교 학교의 선물이었다.

주님의교회 올해 표어는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가정”이다.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살리고 이웃과 직장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선교사들로 세워져서 21세기의 초대교회라고 불리어지게 될 그날을 꿈꾸어 본다. 김익환 안수집사 / 3교구

교회사용설명서⑥

교회학교 알아보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교회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독교 교육을 위해 운영되는 교회 안의 교육 부서를 포괄적으로 부르는 명칭입니다. 주로 주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일학교(Sunday school)’라고도 하며, 성인들을 위한 교리 교육 과정을 교회학교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교회학교의 개념은 18세기 영국, 아일랜드, 미국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공교육과 의무교육 개념이 제도화되지 않았던 시절, 귀족이나 부유한 가정의 남성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 무렵 교회학교는 빈민가의 어린이들과 공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초교육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서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여러 나라에서 공교육 개념과 함께 의무교육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회학교는 기독교 교육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1988년, 주님의교회가 창립된 해에는 교회학교가 없었습니다. 예배 장소를 바꿔야 할 정도로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1989년 1월 YMCA의 20평 공간을 둘로 나누어 교회 사무실과 교회학교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아부, 아동부, 중고등부로 편성했으나, 1990년 4월에 영아부를 영아부와 유치부로 나누었고, 아동부를 유년부와 소년부로 나누었습니다. 1997년에는 중등부와 고등부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연령대와 교육 목적에 따라 교회학교의 부서도 계속 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

교회학교는 연령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특별히 주님의교회에서는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학교를 유아숲,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회학교를 유소년숲,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교회학교를 청소년숲으로 묶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와나는 복음, 성경, 재미, 훈련, 리더십의 5가지 사역 원리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시간에 해당 장소를 찾아가시면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구분	해당 연령	이름	특징	시간	장소	
유아숲 미취학 어린이	15개월 이하	하임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	지하 아기부실	
	18~40개월	아기정원	유아/부모 교육	목요일 오전 10:00	1층 유아부실	
	4~7세	유아영성나무	신앙교육	토요일 10:00	1층 유아부실	
	3세 이하	하늘씨앗1	주일학교	주일 오전 9:00	1층 영아부실	
		하늘씨앗2		주일 오전 11:00		
	4~5세	싹트네1		주일 오전 9:00	1층 유아부실	
		싹트네2		주일 오전 11:00		
	6~7세	담쟁이1		주일 오전 9:00	지하 유치부실	
		담쟁이2		주일 오전 11:00		
유소년숲 초등학생	초등 1, 2학년	포도나무1		주일학교	주일 오전 9:00	1층 유년부실
		포도나무2			주일 오전 11:00	
	초등 3, 4학년	햇살뜨락1	주일 오전 9:00		3층 초등부실	
		햇살뜨락2	주일 오전 11:00			
	초등 5, 6학년	아름드리1	주일 오전 9:00		3층 소년부실	
		아름드리2	주일 오전 11:00			
청소년숲 중/고등학생	중학생	팝콘트리	주일학교	주일 오전 9:00	지하 중예배실	
	고등학생	비전트리		주일 오전 9:00	다목적교육관 5층	
	중/고등학생	청소년제자훈련	제자훈련	토요일 오후 2:00	다목적교육관 4층	
어와나 5~19세	5~6세	커비	성경학습 / 리더훈련	토요일 오전 9:50	1층 유아부실	
	7~9세	스팍스		토요일 오전 9:30	3층 소년부실	
	10~13세	티앤티			다목적교육관 5층	
	14~16세	트렉			3층 초등부실	
	17~19세	저니				

관리법과 주의사항

오늘날 교회학교는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와 신앙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곳이며, 사회의 가치관과 다른 방법으로 믿음 안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입시와 경쟁이라는 힘든 사회적 억압 속에서 성장하는 지금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미래에서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교회학교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교우관계를 통해, 지역과 경계를 넘는 사회성을 배우고 리더십을 익히며,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분들의 무한한 격려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매일의 기도와 지혜의 말씀을 만나게 해주세요.

함글함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역대하

이번 호에는 <역대하>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역대하>는 <역대상>에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부터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담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추려 기록한 책으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해설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66호 '역대상' 편 정답



가로 힌트

1.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던 베냐민 지파의 성읍. 솔로몬은 이곳에 와서 희생 제사를 드렸고 꿈을 꾸었다. (대하 1:2~13)
3. 다드몰 부근의 성읍. 솔로몬이 정복한 곳이다. (대하 8:3)
6. 사사시대를 뒤이어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의 형태를 갖춘 시대의 호칭. 이 시대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설하여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로 만들었다. (대하 3:1~5:1)
7. 예루살렘의 옛 이름.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대하 3:1)
9. 레위 지파 사람. 히스기야 왕 때 성전의 예물을 지방 성읍에 사는 제사장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했다. (대하 31:15)
10.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도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의 하람은 레바논에서 벌목한 백향목을 뗏목으로 만들어 이곳으로 보냈다 (대하 2:16).
12. 네게브의 한 도성. 대개 라못 길르앗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대하 22:6)
13. 유다 17대 왕으로 요시아와 하무달 사이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 아버지 요시아가 므깃도 전투에서 사망한 뒤 국민들에 의해 23세에 왕이 되었다. (대하 36:1)
14.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과 에발 산 사이에 위치한 성읍. 르호보암이 이곳으로 가서 왕이 되었다. (대하 10:1)
17. 티그리스 강과 함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중요한 강. 솔로몬이 이 강에서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대하 9:26)
21. 요시아 왕의 서기관. 요아의 아버지이다. (대하 34:8)
22. 어느 왕국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 (대하 1:9)
23. 레위인이며 스가랴의 아들. 암몬 및 모압 사람과의 싸움에서 여호사밧과 그 군대가 위험에 빠졌을 때, 그는 여호와와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였다. (대하 20:14)

세로 힌트

1. 기브온 서남쪽 8km 지점에 있는 기브온 거민의 땅. 법궤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 갈 때까지 20여년 간 이곳에 있었다. (대하 1:4)
2. 지구 위에서 대륙이 아닌 곳. 염수로 채워져 있다. (대하 2:16)
4. 레위인으로 아삽의 자손.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도왔다. (대하 29:13)
5. 단 지파의 성읍. 솔로몬에 의해 재건되었다. (대하 8:6)
8. 에브라임 산악 지대에 있던 산. 이곳에서 유다 왕 아비야가 유다에 반역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꾸짖었다. (대하 13:4~18)
9. 솔로몬 왕 시대 아라비아반도 남쪽에 있던 왕국의 여왕.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솔로몬의 환대를 받았다. (대하 9:1)
11. 여호사밧 왕 때 유다 방백 중의 한 사람. 여호사밧은 왕이 된 지 3년 되던 해에, 방백들을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 (대하 17:7)
15. 레위의 증손이자 고핫의 손자. 이스하의 아들의 후손들이다. (대하 20:19)
16. 유다의 성읍으로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 르호보암은 왕국의 방비를 강화하면서 성을 건축했다. (대하 11:6)
18. 아히시엘의 조부. 아히시엘은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을 유다가 이길 것이라고 예언했다. (대하 20:14)
19.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곳의 지명. '지켜보는 자'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망대' 라는 보통 명사로 사용되기도 했다. (대하 20:24)
20. 높은 직위 왕, 귀인, 총독, 지도자, 족장 등 높은 직명을 말할 때 쓰인 단어. 특정 지역의 지방장관을 뜻하기도 했다. (대하 12:5~6)
21. 레위인이며 그핫 자손. 히스기야 왕을 도와 성전을 청소한 사람이다. (대하 29:12)



서예나 아기

2022년 10월 28일생

1.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며 자기 모습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시켜 주소서 2.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좋은 영향력을 주는 아이로 성장시켜 주소서 3.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우리 가정이 성령 안에서 믿음의 대화가 넘쳐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빠 : 서경석, 엄마 : 권보라



김유현 아기

2022년 9월 22일생

1. 유현이가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2.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3.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아빠 : 김동원, 엄마 : 이아영

VISION TRIP

온.오프라인 비전트립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온라인

- 코스타리카** (공상호 선교사)
일정: 2023. 8. 4 (금)
담당: 이재혁, 배윤환 목사 / 유정아 권사
- 키르기스스탄** (윤바나바 선교사)
일정: 2023. 7. 23 (주일) - 31 (월)
담당: 이종성 목사 / 신성철 안수집사
- 필리핀** (유성훈 선교사)
일정: 2023. 7. 26 (수) - 7. 31 (월)
담당: 한시영 목사 / 이재홍 안수집사
- 베트남** (최화영 선교사)
일정: 2023. 7. 31 (월) - 8. 5 (토)
담당: 윤경수 목사 / 김미선 집사

모집기준: 선착순 (최대 15명 + 예비 10명)
연령제한: 만 70세 이하 / 초등학교생 (보호자 동반)

2023
SAT 7.22
SUN 7.30

유소년수 여름사역 일정

SUMMER MINISTRY SCHEDULE

주님의교회 유소년수 여름사역일정을 소개합니다!

유년부	7.29(토) - 7.30(주일) 주님의교회
초등부	7.28(금) - 7.30(주일) 치악산 황문 청소년 수련원
소년부	7.28(금) - 7.30(주일) 치악산 황문 청소년 수련원
E M	7.22(토) - 23(주일) 26(수) 주님의교회

전교인 무지개잔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 무지개잔치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당일 현장 사진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일정

- 6/11(주일) 정기당회
- 6/18(주일) 통일선교주일
- 6/25(주일) 창립기념주일(35주년)
- 6/28(수) 겨자씨 인도자 교육 1학기 종강

알립니다

1. 목회서신 안내

담임목사 목회서신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배너' 확인)

2. 여전도회 연합예배 및 월례회

일시 : 6/14(수) 오전 11:00 중예배실(지하)

강사 : 임창진 목사(광야의교회)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
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